

#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김륜옥 | 성신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외국어와 다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지식인은 빠르게 넘쳐나는 다양한 지식 정보를 학제적 관점에서 소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도 물론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런 능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서 최근까지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럽 연합(EU)의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Erasmus Mundus Programme)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은 1999년 6월 19일의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선언은 1998년 5월 25일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발의했던 ‘소르본느 선언(Sorbonne Declaration)’ 을 바탕으로 그 이듬해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유럽 내 29개국의 교육부 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2010년까지 회원국의 고등교육 제도를 단일화, 즉 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시스

템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많은 비유럽국가들까지 참여하여 47개의 회원국이 있는 가운데 현재 20여 개 국가가 예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2003년 12월 5일에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은 유럽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럽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유럽연합의 경제적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비유럽국가들과의 학문적 및 외교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 대학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유럽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과 학문연구 내지 지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에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다름’ 을 익히며,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다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 제1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EMP I)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5년간 시행된 제1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1: 공동 석사과정 프로그램

유럽연합국의 대학에 공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그중 최소 3개국 대학에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이중학위, 다수의 학위 혹은 공동학위를 수여한다.

### 2) 사업 2: 장학 프로그램

비유럽국가 출신의 학생 및 연구자도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 3) 사업 3: 파트너십 프로그램

위 석사과정을 진행하는 대학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을 비유럽국가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유럽연합국 출신의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유동성 장학금을 지급한다.

### 4) 사업 4: 우수성 증진 프로그램

유럽대학의 프로필, 인지도, 입학기회 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5) "외부 협력 창구 External Cooperation Window (ECW)" 프로그램:

쌍방의 유동성을 도입하기 위해 유럽 대학과 (특정) 비유럽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100여 개의 대학이 103개의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유럽연합국 및 비유럽연합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했던 286여 건의 파트너십이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 제2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EMP II)

올해부터 2013년까지 시행될 제2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은 2008년 10월 21일에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 12월 16일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뒤 12월 19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지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11일에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회의가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학술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유럽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960,000,000유로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사업은 크게 3가지이다.

### 1) 사업 1: "공동프로그램(Joint Programmes)" - EMP I의 사업 1, 2, 3 관련

- 공동 박사과정 추가: 1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에서 이미 지원해온 공동 석사과정에 더하여 공동 박사과정도 지원한다. 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중학위, 다수 학위 혹은 공동학위를 수여한다.



- 학생 장학금: 특히, 올해 우선적으로 실행되는 공동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석사과정의 비유럽 출신 학생에게 연간 24,000유로, 유럽 출신 학생에게 연간 10,000유로가 주어진다. 또한, 박사과정의 개인 장학금은 3년 한도로 유럽 출신, 비유럽 출신, 연구실 채용 기준 등에 따라 61,200유로에서 129,900유로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 연구원 장학금: 유럽연합국 및 비유럽연합국에서 선발된 연구원에게는 선별된 에라스무스 문두스 코스에서 최장 3개월간 참여할 수 있는 장학금(주당 1,200유로)을 지급한다.
- 컨소시엄: 최소한 3개의 유럽연합국 대학과 비유럽연합국 대학이 함께 구성해야 한다.
- 에라스무스 문두스 라벨: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대학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공고: 2009년 2월 10일에 있었다.
- 참여 신청 기간: 2009년 4월 30일까지 접수하였다.
- 1차 모집: 15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향후 2013년까지 150개 석사과정을 지원한다. 여기서 8,500여 명에게 학생장학금과 4,000여 명에게 연구자장학금 수여가 가능하다. 또한 박사과정의 경우, 올해 10여 개의 공동프로그램을 선정하고, 2013년까지 35개 프로그램 및 750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 2) 사업 2: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mes)” – EMP I의 ECW 관련

- 지원 대상: 유럽 및 특정한 비유럽국가의 대학기관 협력을 지원한다.

- 목표: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다.
- 장학금: 특정한 교육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육단계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즉, 유럽 및 특정한 비유럽국가 출신으로서 학사, 석사, 박사, 박사 후 연수자와 학자 및 대학의 기타 인력을 위한 단기간(1학기) 혹은 장기(3년까지)의 전체 혹은 부분 장학금을 지원한다.
- 학기 인정: 외국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는 자국 대학에서 인정한다.
- 1차 프로그램의 “외부 협력 창구(ECW)” 프로그램은 2009년 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

## 3) 사업 3: 프로그램의 국가적 구조의 우수성 증진 프로젝트 – EMP I의 사업 4 관련

- 내용: 유럽 대학교육의 특징과 우수성 및 입학 기회 등을 부각하고, 증대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예컨대, 국제적 차원에서 대학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교과과정 개발, 학점 및 자격증 인정, 연구 및 홍보 활동(예: 에라스무스 문두스 동창회 모임) 등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된다.
- 컨소시엄: 최소한 3개의 유럽 대학을 포함하고, 비유럽국가 대학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유럽국가들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유럽연합은 이미 1995년부터 미국 및 캐나다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왔고, 2002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간에 실행된

267개의 프로젝트에는 약 800개의 유럽 대학 및 직업 교육기관과 680개의 북미국가의 기관, 그리고 6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관이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교환제도가 지원되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북미국가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총 92,000,000유로를 준비해 두고 있다.

### 유럽연합과 미국의 신 프로젝트: “프로그램 아틀란티스”(2006-2013)

유럽연합에서 46,000,000유로(2007년에 비해 18% 증가)를 투입할 미국과의 3차 단계 프로그램은 16개의 새 공동프로젝트를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의 73개 대학 및 교육기관이 참여하여 약 700명의 교환학생들을 지원한다. 여기서 핵심은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학위구조이다. 말하자면, 학생 위주의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을 추구하고, 공동학위 혹은 이중학위 수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새로 선별된 프로젝트는 크게 3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8개 트랜스애틀랜틱 학위과정

이것은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유럽 내지 미국의 파트너 대학에서 이수한 1년간의 학업을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유럽과 미국의 각 파트너 대학에서 공동 학사학위 혹은 이중 학사학위, 공동 석사학위 혹은 이중 석사학위를 수여 받는다.

- 유동성을 위한 6개 엑셀런스 프로젝트

유럽연합 내의 에라스무스 교환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젝트이다. 교과과정 개발과 한 학기 동안의 학생 유동성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 4개의 전략적 조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문제를 비교하는 연구, 세미나, 연구그룹, 벤치마킹 연구를 통한 대서양 양안 국가들의 공동 작업을 지원한다.

###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신 프로젝트(2006-2013)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3차 단계의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및 청소년 분야에서 8개의 새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를 위해 양 대륙에서는 총 42개의 대학과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총 예산액 약 36,000,000유로(그 중 2009년에 26,000,000유로 집행)는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3년간에 걸친 360명의 학생들을 위한 유동성 방안에 쓰인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상호 학점 인정, 쌍방 간 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적절한 예비교육, 그 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다양한 보조업무와 하부구조 구축을 통해 더욱 보완될 것이다.

### 유럽연합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신 프로젝트(2007-2009)

이 프로젝트는 특히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유럽연합이 2002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진행해온 “산업국가구 교육 협력프로그램(Industrialised Countries Instrument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ICI ECP))”의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시작될 11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15개는 호주와, 3개는 한국과, 2개는 일본과, 그리고 1개는 뉴질



랜드와 진행하고, 실행 모델은 유럽연합이 이미 1995년부터 미국 및 캐나다와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다. 총 75개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약 940명의 학생들을 위한 유동성 방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총 예산 약 25,000,000유로를 준비해 두었고, 또한, 같은 액수를 파트너국가들이 부담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파트너국가들 간의 문화 및 학술 교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 지역 파트너 대학을 위한 1차 공고는 2008년 4월 2일에 있었고, 참여 신청은 2008년 6월 6일까지였다. 유럽연합에서 총 예산 25,000,000유로를 배정한 2008년 공고에서 선정된 파트너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유럽연합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의 유동성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생과 교육인력 및 행정인력의 단기 유동성 체류를 지원한다. 하나의 컨소시엄에는 최소 3개의 유럽연합국에서 3개의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 그리고 각 파트너국가에서 2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연합 측에서 부담하는 후원금은, 유럽연합국 내지 교육기관 3개가 참가한 경우에는 최대 318,750유로이고, 4개 이상이 참가한 경우에는 최대 425,000유로이다.

프로젝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혁신적인 분야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가령 수자원의 지속적 관리, 민간사회 조직, 지역적 및 글로벌 주권, 농촌지역 및 농업 발전, 레이저·자재 상호작용, 지속적 관광, 국제관계, 기계공학과 생산공학 및 기계·전자공학(Mechanical Engineering-Electronic Engineering), 조기교육 방안, 건강 증진, 국가이월적

법률, 국제 경제, 수자원 전산정보학, 경영인 사고와 행동 교육, 정보시스템,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역학, 임업 및 천연자원, 통합적 사회복지활동, 환경저널리즘, 도시개발, 자연생산물, 유행 의상, 그래픽디자인, 호텔매니지먼트 및 요식업연구, 양자정보처리, 기후변화, 종이기술학, 전산정보학과 자연과학 분야 등이다.

유럽연합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2차 공고는 2009년 5월 말이고, 참여 신청 기간은 2009년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력의 교육이 경쟁력을 얻은 오늘날, 유럽 내지 유럽대학들은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새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어찌면 1차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으로 이미 시작된 국제적 '교육시장 및 인력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는 멀지 않은 미래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가 거의 모두 참여하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에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DAAD, Das ERASMUS Mundus Programm, (<http://eu.daad.de/eu/erasmus/05332.html>)

DAAD, Erasmus Mundus Programm, Materialsammlung für das Hochschuljahr 2007-2008, ([http://eu.daad.de/imperia/md/content/eu/mundus/handbuch\\_hj\\_07\\_08.pdf](http://eu.daad.de/imperia/md/content/eu/mundus/handbuch_hj_07_08.pdf))

DAAD, Der DAAD und die EU-Programme, ([http://eu.daad.de/imperia/md/content/eu/downloads/erasmus/publikationen/eu\\_broschuere\\_daad.pdf](http://eu.daad.de/imperia/md/content/eu/downloads/erasmus/publikationen/eu_broschuere_daad.pdf))

DAAD, EU-Förderungsmöglichkeiten für die Hochschulzusammenarbeit mit Drittstaaten, April 2009, (<http://ec.daad.de>)

DAAD, Australien / Neuseeland / Japan / Südkorea, 2009.05.18, (<http://eu.daad.de/eu/drittlandkooperationen/asien-australien/eu-australien/05271...>)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ised Countries Instrument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 (ICI ECP), Call for proposals 2008, ([http://ec.europa.eu/education/programmes/eu\\_others/call08\\_en.html](http://ec.europa.eu/education/programmes/eu_others/call08_en.html))

European Commission, Erasmus Mundus (2009-2013), ([http://ec.europa.eu/education/external-relation-programmes/doc72\\_en.htm](http://ec.europa.eu/education/external-relation-programmes/doc72_en.htm))

European Union, Erasmus Mundus (2004-2008), 2007.09.21, (<http://europa.eu/scadplus/leg/de/c/ha/c11072.htm>)

European Union, Zusammenarbeit im Hochschulbereich: EU stellt 9,2 Mio. € für die Kooperation mit Industrieländern in Nordamerika und im asiatisch-pazifischen Raum bereit, Brüssel, 2008, 12.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guiLanguage=en>)

European Union, BESCHLUSS Nr. 1298/200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Amtsblatt der Europäischen Union, 2008.12.19,

([http://eu.daad.de/imperia/md/content/eu/mundus/beschluss\\_emii.pdf](http://eu.daad.de/imperia/md/content/eu/mundus/beschluss_emii.pdf))

직 중이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젠더, 다문화, 신화, 토마스 만, 여성작가, 독일문학과 한국문학 비교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유럽/독일의 문화와 학교제도, 유럽/독일과 한국의 대학교육, 다문화 사회 등이다.

# Erasmus Mundus



## 필자소개

### 김륜옥

성신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문학사, 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국어독문학회 부회장, 한국해세학회 부회장 및 감사, 성신여대 독어독문학과 학과장, 성신여대 기숙사 지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